

주현절 후 두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2년 1월 16일 오전 10시

인도: 이성우 장로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박대웅 목사
*찬 송 Hymn	19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새 6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2 번 마태복음(Matthew) 5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단(Daniel) 6:10-16 갈(Galatians) 1:6-9	고원희 집사
찬 양 Anthem	“드러지게 하소서”	찬양대
설 교 Sermon	“그리스도인의 순결과 순종” (Purity and Obedience for Christians)	박대웅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83 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새 53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박대웅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아닌 집착을, 배려가 아닌 자기 주장을, 섬김이 아닌 교만을, 드러낼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안락함과 이기적 욕망에 익숙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날마다 되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22:37, 3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개역개정 단 6:10)

“Now when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where the windows opened toward Jerusalem.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NIV Daniel 6:1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6 (주일)	1/17 (월)	1/18 (화)	1/19 (수)	1/20 (목)	1/21 (금)	1/22 (토)
	창17	창18	창19	창20	창21	창22	창23
본문	마16	마17	마18	마19	마20	마21	마22
	느6	느7	느8	느9	느10	느11	느12
	행16	행17	행18	행19	행20	행21	행22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19 오후7:30)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삿106-18)
토요 새벽기도회 (1/22 오전6:30)	“주께서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를” (시66:1-20)

지난 주일(1/9) 말씀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2) – “부르시니 따라가니라” (막 1:15-20)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나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곧 결단이며, 또한 “우리의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모험” (본 회퍼)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겠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그릇된 과거와는 단절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고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를 따라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1)우리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2)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3)우리가 오랫동안 움켜쥐고 붙잡으려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끝까지)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